

한글로 된 「칙목녹」에 대하여

윤 병 태*

<차례>

- | | |
|-----------------|----------------|
| 1. 머리에 | 5. 목록의 성립 |
| 2. 서지적 사항 | 6. 끝으로 |
| 3. 목록에 든 책에 대하여 | 참고문헌 |
| 4. 집서의 분석 | 부록 : 《칙목녹》(전문) |

1. 머리에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왕실이나 궁정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도서관이나 문고가 생겨나고 또 없어지기도 하였다. 여러 왕대의 정치적 중심인 서울 즉 수도에 이러한 도서관이나 문고가 몰려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 지방이나 시골에도 이와 비슷한 도서관이나 문고가 있었으니, 오늘날 사찰문고·서원문고·향교문고·문중문고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에 든다고 하겠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도서관이나 문고에만 두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이 보면서 봄은 경우가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문고 그리고 개인이 봄아 두었던 책들을 기록하여 둔 장서목록은 약 300여종만이 남아 있어, 그리 많은 양은 아니나, 어느 정도 그들이 봄아 두었던 책에 관한 일들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장서목록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서인지, 대체로 거개가 한

* 경북대학교 문리파대학 도서관학과 전임강사

자로 된 것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일찌기 보아 두었던 장서목록 속에는 순전히 한글로만 적어둔 것이 몇 가지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 중의 한가지인 《침목녹》을 들어, 서지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 책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생각한다.

2. 서지적 사항

이 《침목녹》은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수장하고 있다. 원래는 가람이병기 선생이 지니고 있었던 책이나, 서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1966년에, 일사 방종현 선생과 가람이병기 선생이 지니고 있던 책들을 정리하여, 그 기념문고의 장서목록을 펴낼때에, 이 책도 그 속에 넣어서 발표하였다. 글쓴이는 마침 그때 이 책들을 정리하였으므로 한별을 베껴두면서 두고 보고 있다.

이 책은 문고목록에 따르면, 모두 1첩으로 되어 있다. 책은 병풍처럼 열번 접혀있는데, 모두 19면(쪽)으로 되어 있다. 접은 크기는 세로가 25.7cm이고, 가로(쪽)가 14cm로 되어 있다.

두터운 장지에 궁체의 글씨로 붓으로 베껴쓴 것이다. 패선을 그리지 아니한 한면에는 각각 다섯줄씩 책목록을 적어 두고 있다.

이 책은 1948년에 국립도서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되기 이전에 베껴 둔 책도 지금 그 도서관에 남아 있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된 한지에 베낀 것인데, 한면에 9행으로 베낀 것이며, 모두 10면에 쓰여 있다.

두가지 책 모다 책 첫머리에 「침목녹」이라는 권수제가 있다. 가람의 원장본에는 이 책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쓰인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다만 국립본에는 가람본을 보고 베겼다는 기록이 쓰여 있다. 원본에 따라 알아 본다면 이 《침목녹》이 언제 · 어디서 ·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알아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5”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목록에 수록한 책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3. 목록에 든 책에 대하여

《칙목녹》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모두 한글로 그 서명이 적혀 있으므로, 이들 전부가 한글로 된 책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또 여기에 기록된 책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하다. 그런 까닭에 아래에서는 《칙목녹》에 기록된 하나하나를 들어, 그 책에 관한 것을 잠깐 더듬어 보기로 한다. 서명 앞의 번호는 이 글에서의 차례를 매긴 것이며, 서명 뒤의 팔호 속에 쓴 번호는 《칙목녹》의 원래 차례를 밝힌 번호이다.

1. 가의치안칙 (38) 단

《한국고서종합목록》에도 보이지 않는 책이라 알 수 없다.

2. 각광년 (80) 단

한글로 된 전기체 소설 같으나, 《한국고서종합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3. 고금녀범 (69) 단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에 보면 가람의 구장본으로 필사본 1책이 있다. 장수는 45장이다. 한글로 되어 있다.

4. 고금절염투식녹 (70) 단

이 책 역시 알 수 없다.

5. 고담 (84) 단

이 책은 옛이야기를 뜻하는 책 같다. 남아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6. 고문박션 (46) 공십

이 책은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에 따르면, 장서각에 한글로 쓴 필사본 3권 10책이 남아 있다. (4 - 388)

7. 고문진보 (15) 일건 공칠권

이 책은 목판으로 인쇄한 한문본인 《상설고문진보대전》인 것 같다.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다.

8. 고문진보언히 (16) 일건 공십칠건.

이 책은 장서각에 한글 필사본 8권 8책본이 남아 있다. (4-389) 책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같은 언해본으로 보이는 책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있는 고 최남선 선생 구장본 속에 있는 《상설고문진보대전》이라는 언해본이 아닌가 생각되나 알 수 없다. 육당본은 아깝게도 영본 8책만 남아 있다. (귀중서 60)

9. 공자가어 (35) 이

이 책은 한문으로된 《공자가어》나 《구해공자가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책수도 같다. 앞의 책은 활자본이, 뒤의 책은 활자본과 목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10. 국풍 (39) 단

이 책은 장서각에 한글 필사본 1책이 남아 있다. 장수는 49장이다. (1-35) 이 책은 《시경》의 《국풍》을 추린 것을 한글로 그 음을 옮기고 또 언해한 것이다.

11. 귀문도 (28) 일첩

12. 귀문도희 (29) 일첩

두가지 모두 남아 있는 책이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두책이 한짝인 것과 첨본인 것은 짐작할 수 있다.

13. 규장전운 (23) 일권

이 책은 정조가 명령한 《어정 규장전운》임이 틀림 없다. 이 책은 목판본

으로 여러 판본이 나와 있어, 여러 곳에 소장된 책이 많이 남아 있다.

14. 고갑견문록 (59)

알 수 없다.

15. 고답 (83) 단

기이한 이야기라는 《기답》같다. 남아 있는 책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6. 낙성비룡 (60) 공이

이 책은 장서각에 남아 있다. 모두 2권 2책으로 되어 있고, 한자 서명은 《낙성비룡》인 한글 필사본으로 된 소설이다. (4 - 6786) 영인본으로 발간된 일도 있고, 또 정병욱 교수가 《낙선재문고본 목록 및 해제》에도 자세한 해제를 하였으므로 널리 알려진 책이다.

17. 난초직세고 (54) 공이

이 책은 남아 있는 책이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다.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이승녕 교수가 《난초재연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글 소설인 것 같다.

18. 남계연담 (48) 공수

이 책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책이 장서각에 남아 있다. 장서각본은 원래 3권 3책이었던 모양이나 지금은 2책만 남아 있다. (4 - 6788) 한자로 된 서명도 《남계연담》이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정병욱 교수의 해제가 앞서 든 책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다.

19. 니훈 (87) 일권

20. 니훈 (12) 일건 공삼권

이 책은 덕종의 비인 소혜왕후 한씨가 편찬한 것이다. 무신자로 찍은 활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21. 女수서 (58) 공이

이 책은 언해본인 《여사서》같다. 《여사서》는 무신자로 찍은 활자본 4권 3책과, 필사본 3권 1책이 남아 있다. 이 두가지 모두 그 책수가 같지 않으니 또다른 책이 아닌가 모르겠다.

22. 女용국정난고 (78) 단

이 책 역시 남아 있지 않다.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신암 김약을 선생의 장본으로, 한글로 쓴 소설 《여용국전》이 보이는데, 같은 내용의 책인 것 같다.

23. 녁대고년 (73) 단

이 책은 장서각에 한글로 쓴 필사본 두가지가 남아 있다. 하나는 1책 83장본이고 (2-126), 다른 하나는 1책 65장본이다. (2-127)

24. 농신전 (76) 단

이 책은 남아 있지 않다.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김동욱 교수 소장본으로 《농문정통절행농》이라는 책이 있다. 그 외제가 《육신전》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내용의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25. 당시별적 (21) 일건 공눅권

이 책은 중국본으로 목판본인 《당시별재》인 것 같다.

26. 대송홍망녹 (57) 공이

이 책은 장서각에 한글 필사본 2권 2책이 남아 있다. 그 외제는 한자로 《대송홍망록》으로 되어 있는 역사소설이다.

27. 덩희정니의궤 (26) 공삼권

이 책은 《을묘정 니의궤》에 이어서 썼음으로 같은 책은 아닌 것이 분명하

다. 《진작의궤》를 “정리의궤”라 부른 일이 많으므로 정해년의 《진작의궤》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정해년에 해당하는 해는 순조27년(1827)과 고종24년(1887)의 두 해가 있다.

28. 도영행 (62) 공이

이와 같은 이름의 책은 고 일사 방종현 선생의 구장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필사본으로 2권 2책이며, 외제는 한자로 《도영행》으로 되어 있다.

29. 도척던 (77) 단

남아 있는 책은 알 수 없다. 《장자》에 있는 도척〉을 주제로 한 한글소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30. 도시보은녹 (64) 공이

한글 소설 같으나, 남아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31. 려수서 (13) 일건 공삼권

책수로 보아 《녀수서》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21 참조)

32. 례괴 (9) 일건 공십구권

한자로 된 《예기집설대전》을 약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다.

33. 례괴언독 (10) 일건 공눅권

무신자로 찍은 활자본인 《예기대문언독》을 약하여 쓴 것 같다. 이 책은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다.

34. 맹자 (3) 일건 공칠권

이 책은 한자로 된 《맹자집주대전》을 약하여 쓴 것 같다. 많은 판본이 여

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35. 맹학 (4) 일건 공칠권

『맹자언해』를 약하여 쓴 것이다. 역시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36. 무목왕정총녹 (45) 공십이

같은 이름의 책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7권 7책으로된 필사본이다. (4-6806)

37. 무오연횡 (43) 공십

장서각에는 서유문이가 지은 비슷한 이름의 『무오연횡녹』 필사본 6권 6책이 남아 있다. (2-4518) 책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다른 책인지도 알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은 앞에든 책에 정병욱 교수의 자세한 해제가 있다.

38. 문장풍류삼되록 (61) 공이

장서각에는 같은 이름의 한글 필사본 2권 2책이 남아 있다. 외제는 한자로 『문장풍류삼대록』으로 되어 있다. (4-6808) 위에든 같은 책에 정병욱 교수의 해제가 있다.

39. 방심원의마고 (82) 단

40. 범슈던칠국춘추 (37) 단.

두가지 모두 알 수 없다.

41. 부담 (65) 단.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가람 이병기 선생의 소장본으로 한글 필사본 1책 43장본이 기록되어 있다. 외제는 떠도는 이야기라는 뜻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66년에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간행한 가람

문고의 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42. 불아불 (32) 일권

알 수 없는 책이다.

43. 수문뉴취 (20) 칠십오권

한문으로 된 《신편고금사문류취》를 약하여 쓴 것 같다. 이 책의 책수로 보아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44. 산성일기 (74) 단.

같은 이름의 한글 필사본 두 가지가 장서각에 남아 있다. 두 가지 모두 1 책으로 되어 있으며, 한 가지는 45장이고 (2 - 218), 다른 한 가지는 75장으로 되어 있다.

45. 삼강행실언화 (86) 일권.

《삼강행실도》 번해본을 약하여 쓴 것이다. 판본이 많이 남아 있다.

46. 삼국지 (41) 공삼십구.

장서각에 《삼국지통속연의》의 한글 필사본 39권39책이 남아 있다. (4 - 6815) 이 책의 외제가 한자로 《삼국지》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내용의 책이다.

47. 삼녹기 (40) 단.

남아 있는 책이 없어 알 수 없으나, 한글로 된 기전체 소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48. 삼직도회 (27) 일건 공오십건

이 책은 중국본의 《삼재도회》를 의미하는 것 같다. 장서각에는 106권107책본이 남아 있다. (中 3 - 292)

49. 샤심보 (79) 단.

남아 있는 책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50. 선문 (14) 일건 공삼권.

책수로 보아 한문으로된 《선문철영》 3책이 이에 해당될 것 같다.

51. 설시닌범 (49) 공오

비슷한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설씨 닌범서》 6권 6책이 남아 있다. 책수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52. 설널대 (50) 공삼.

알 수 없는 책이다.

53. 성풍류 (47) 공칠

장서각에 한글 필사본 7권 7책이 전하고 있다. 외제는 한자로 《성풍류》로 되어 있다. 정병우 교수가 해제한 것에 따르면, 청나라 최시산인이 지은 《성풍류기전》 20회본을 번역한 작품이라 한다.

54. 쇼미가숙통감 (36) 단.

한문으로된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의 영본이거나, 초기 혹은 초역한 것인 것 같다.

55. 소학 (1) 일건 공 권.

한문으로된 《소학제가집주》를 약하여 쓴 것 같다.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56. 쇼학언해 (85) 일권.

《소학언해》이거나, 혹은 책수로 보아 초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7. 숙향던 (53) 공

한글 소설인 《숙향전》이다. 필사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58. 시던 (7) 일건 공십권.

한문으로된 《시전대전》을 약하여 쓴 것 같다.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59. 시던언학 (8) 일건 공칠권.

《시전언해》이다. 판본과 그 소재는 위와 같다.

60. 쌍덜옥쇼봉 (52) 공삼.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김일근 교수 소장본에 《쌍덜옥쇼기봉》이라 는 책이 있다. 아마도 비슷한 내용의 한글 소설인 것 같다.

61. 아희원람 (72) 단.

이이엄 장훈이 편찬한 한문본인 《아희원람》인 것 같다. 이 책에는 한글 이 몇자 들어 있다. 순조 3년 (1803) 신간본과 활자본이 있다.

62. 어제백행원 (11) 일건.

한문본 혹은 한글본의 《어제 백행원》인 것 같다.

63. 역희 (6) 일건 공오권.

《주역언해》를 약하여 쓴 것이다.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64. 오륜행실 (17) 일건 공수권.

한문과 한글로된 《오륜행실》인 것 같다. 정리자와 오륜행실자로 찍은 활자본과 목판으로된 복각본이 여러곳에 전하여지고 있다.

65. 옥닌몽 (44) 공십이.

한글 소설로 필사본이 여러 곳에 전하여지고 있다.

66. 왕태상 (68) 단.

중국본 같으나 알 수 없다. 전하여지는 책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67. 운부군옥 (24) 일건 공이십칠권.

한문으로된 《증속회통운부군옥》 같다.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전하다.

68. 위음식 (75) 단.

알 수 없는 책이다.

69. 유람 (55) 공이.

남아 있는 책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가람문고에 있는 《유취요람》과 같은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두고 볼 일이다.

70. 유박야 (89) 단.

알 수 없는 책이다.

71. 유한당 (88) 공삼.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일사문고에 있는 《유한당언행록》과 비슷한 내용의 책이 아닌가 생각되나 알 수 없다.

72. 윤판서부인던 (81) 단.

남아 있는 책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전기 혹은 전기소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73. 을묘정니의궤 (25)

정리자로 찍은 활자본의 《원행을묘정리의궤》 10권 8책 같다.

78. 일동장유가 (51) 공수

김인경이 지은 것으로 가람 이병기 구장본에 4권 4책이 남아 있다.

75. 일활금 (71) 단.

중국본으로 같은 서명의 책이 남아 있다.

76. 작비암 (56) 공이

한문으로 된 《작비암일찬》을 초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7. 전등신화 (34) 이권

한문으로 된 《전등신화구해》를 약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판본이 많이 남아 있다.

78. 쥬선단 (66) 단.

장서각에 《쥬선단변화》라는 한글 필사본 1책이 전한다. 모두 19장인 이 책의 외제는 한자로 《주선전》이라 쓰여 있다. 아마도 같은 내용의 책인 것 같다.

79. 주역 (5) 일간 공십수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주역전의대전》을 약기한 것 같다. 이 책은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80. 직금도 (30) 일첩

《경직도》 중에서 〈직금도〉만을 일첩으로 성책한 것으로 보인다.

81. 치각면 (63) 이권.

한글 소설 같다. 존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82. 파션 (18) 일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파션》과 같은 책이 아닌가 생각되나 알 수 없다.

83. 패문운부 (22)

중국본인 《패문운부》로 생각된다.

84. 한털글 (67) 단.

한문본 《일철금》을 한글로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끝자의 “글”은 “금”의 오자가 아닐까.

85. 현봉쌍의록 (42) 공이십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서명이 한자로 《현봉쌍의록》이라는 책이 있다. 같은 내용의 소설인 것 같다.

86. 화털 (33) 삼

그림 그린 것을 뭉은 책 같다.

87. 회근수 (31) 일권

가사 같으나 알 수 없는 책이다.

88. 효경 (2) 일건

한문으로된 《효경대의》를 약하여 쓴 것 같다. 여러가지 판본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89. 흉어시이전 (19)

원본의 글씨가 분명하지 않아 무슨 책인지 알 수 없다.

4. 집서의 분석

위 3에 든 책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칙목록》에 수록한 책의 종류수는 모두 89종이다. 그 중에서 《니훈》과 같이 서명이 꼭 같은 것, 《녀수서》·《여수서》와 같이 서명이 오기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 《귀문도》와 그 도해가 한조인 것 등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종류수는 86종이나 된다.

이 89종의 책중에서 그 책수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82종이고, 책수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7종이다. 이 7종 중에는 《효경》·《어제박행원》·《을묘정니의궤》와 같이 그 책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책이 3종이나 있다. 그렇다면 책 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3종만 남게 된다.

이 중에서 책수가 분명한 82종의 전 책수는 477책이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을묘정니의궤》가 완질이라 한다면, 3종의 책수는 모두 10책이다. 기록하지 아니한 것 4종을 각각 1책이라 가정한다면 그 책수는 모두 4책이다. 이들을 전부 합친다면 491책이다. 따라서 《칙목록》을 소장하고 있던 장가서는 89종에 491책을 소장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런데 《운부군옥》은 아무리 적어도 20책 이상이 될 것인즉, 500책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든 것과 같이 책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85종을 다시 1질당 책수를 조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1 책뿐인 것	37종	43.5%
2 책인 것	12종	14.1%
3 책인 것	8 종	9.4%
4 ~ 5 책인 것	8 종	9.4%
6 ~ 9 책인 것	7 종	8.2%

10~19책인 것	8 종	9.4%
20~29책인 것	2 종	2.3%
30책 이상인 것	3 종	3.5%

이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85종의 43.5%인 37종이 단 한책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1질당 구성 책수는 5.7책이다. 이러한 숫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고서의 질당 책수 추정에 약간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서의 구성을 언어별로 본다면, 순한글로 쓴 것이 29종으로 당연히 많으며, 이 구성은 《착목녹》에 수록된 장서들이 우리 한글문화 연구에도 매우 참고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 국한문 혹은 언해본이 13종이나 있는 것 역시 순한글본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언어별로 세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순한문으로 된 저작이 19종이나 된다. 그리고 언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28종이나 된다. 이 속에도 한글로만 쓴 책이 포함되어 있지않나 생각된다.



수록된 집서를 그 제본의 형태에 따라 보면 당연히 선장·방책본이 대다수인 것 같다. 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귀문도》와 그 도해·《직금도》 그리고 《화첩》 등 3종 6첩등의 그림을 주로한 저작물이 차지하고 있다.



집서를 사부분류에 따라 주제별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경부	계 13종
역류	2 종
시류	3 종
예류	2 종
맹자류	2 종
효경류	1 종
자서류	2 종

훈·몽·류	1 종
사부	계 11종
역사류	2 종
기록류	2 종
지리류	1 종
천기류	6 종
자부	계 40종
유가류	10종
수록류	1 종
예술류	4 종
소설류	21종
잡찬류	1 종
유서류	3 종
집부	계 6 종
총집류	4 종
시문평류	1 종
사곡류	1 종
미상	18종

이 주제별 통계를 놓고 볼 때, 부별로는 자부가 40종으로 당연히 많으며, 자부 중에서도 소설류가 21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제별 통계의 결과는, 이 장서 속에 문집이 전혀 들어 있지 않고, 그밖에 과거에 필요한 장서 등이 적게 들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집서는 선비나 관리의 집서 보다도 부녀자의 집서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집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은 그 현존 여부이다. 앞의 3에 서도 하나하나 언급하였지만, 이 집서 모두 89종을 분석한 결과를 다시 짐계여 보면 그 현존 여부와 집서의 분산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계한 바를 보면, 한문 혹은 활자나 목판으로 인쇄한 인본류는 모두 32종

으로 비교적 그 존본이 널리 있는 것이다. 다음이 소재를 알 수 없는 것 30종이다. 비슷하거나 같은 서명의 책도 남아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존본의 기대가 매우 끊임이다. 이 속에는 한글로 된 책이 들어 있으므로 그 기대는 더욱 크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서명이거나 같은 서명이라도 책수가 약간 다른 것이 12종이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서각에 있는 장서와 서명이나 책수가 꼭 같은 것이 11종이나 된다는 일이다. 이 《칙목녹》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기 이전에는 이 책들이 지금 장서각에 옮겨 놓은 구 낙선재 장서의 목록이 아닌가 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 장서각에 남아 있는 책과 같은 책이 기록된 《칙목녹》의 집서야말로 구 낙선재 장본의 구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남은 부류는 가람 이병기 선생 구장본에 3종, 일사 방종현 선생의 구장본에 1종 모두 4종이다. 그중에서 가람선생이 가지고 있던 《고금녀범》·《부담》·《일동장유가》의 3종은 가람선생이 《칙목녹》을 입수할 때에 함께 그 책들을 입수하였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도 보겠다. 마찬가지로 일사 선생도 가람선생과 가까웠던 만큼 그때에 《도앵행》 1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수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상과 같은 여섯가지 부류를 모다 통털어 다시 집계하면, 그 집서중에서 같은 책으로 보이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은 47종·비슷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은 12종 합하여 59종이며, 남아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30종으로 반이 넘는 종류수가 남아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5. 목록의 성립

위에서는 이 목록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밝혀 보았지만, 남은 문제는 이 《칙목녹》이 언제·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책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 해답은 목록자체의 분석에서 찾을 길 밖에 방법이 없다.

《칙목녹》을 누가 편찬하였는가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다만 짐작한다면, 이 책이 궁체의 한글로 쓴 것을 미루어 본다면 궁중에서나 혹은 궁중에 드

나들거나 드나들었던 일이 있는 사람이 쓴 것 같다. 또 이 목록을 한글로만 쓴 것은, 이 목록의 편자나 이용자가 여자임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장서의 구성속에 여자들에게 긴요한 여러가지 수신서들이 많은것, 또 여자와 관계되는 문헌이 많은 것, 그리고 한글소설이 많은 것 등은 이 말을 특히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목록의 내용중에 있는 책 속에 구 낙선재 소장본과 같은 책이나 비슷한 서명의 책이 많은 것은 이 책들을 지닌 소장자가 낙선재와 어떤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를 짐작하게 한다.

이 『칙목녹』이 편찬된 시기는 그 집서 속에 저작의 성립연도가 정확한 장서가 들어 있어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다. 활자본이나 목판본은 같은 서명의 판본이 여러가지 나왔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나 대체로 영조와 정조의 재세시에 간행한 것이 많은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늦은 시기 간행본 중의 하나인 『어정 규장전운』은 최초의 간본이 정조20년 병진(1796) 8월 11일에 반사된 책이다. 또 『아희 원람』은 정조22년(1798) 경에 정리자체를 담은 철활자로 인쇄한 활자본이 처음 나왔으며, 순조 3년 계해(1803)에 활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 간행되었다.

또 간본이 없는 『상설고문진보』의 언해본은 육당 최남선의 구장본에 있는 영본에 따라 짐작하여 보면 그 성립은 정조 말년에서 순조 초년 사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책들의 간행이나 언해본의 성립을 근거를 짐작하여 본다면 『칙목 녹』의 편찬이 끝난 것은 일려도 순조 초년이 된다고 보겠다. 이 목록의 편찬시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면, 『칙목녹』에 수록되어 있는 성립연도 미상의 여러 한글본 특히 한글소설들의 성립 하한 연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6. 끝으로

이상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한글로만 쓴 장서목록인 『칙목녹』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 목록은 고 가람 이병기 선생의 구장본으로, 지금은 서울

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궁체의 글씨체로 한글로만 쓴 필사본이며 1첩으로 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모두 89종의 책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수서는 적어도 500책 이 넘는 장서라 할 수 있다. 이 목록에 든 책을 하나하나 검토 분석한 결과 1절당 평균 구성 책수는 5.7책이며, 장서 구성은 순한글로 쓴 것이 29 종으로 그 중에는 우리 한글 문화 연구에 매우 참고가 되는 저작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수록된 책들은 거개가 선장 방책이며, 주제별로 보아 소설류가 21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칙목녹》에 수록한 책들은 30종을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책이 남아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 목록은 누가 언제 편찬·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궁중 혹은 궁중에 관계있는 여자의 힘으로 순조 초년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이 책과 동시에 가람 이병기 선생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책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가람선생의 일기 등 여러 전기자료가 더 발표된다면, 이 《칙목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일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글 장서목록은 아직 여러가지가 더 남아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장서목록들이 재대로 구명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장서목록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이나 문고 그리고 개인의 장서에 대한 구명에도 필요하겠지만, 그 수집배경·전적성립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발굴과 정립에도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9. 2. 18完)

참고문헌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圖書解題. 서울:高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亞細亞問題研究所 藏書目錄 Ⅲ. 六堂文庫.

- 서울 :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4.
-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薦叢文庫漢籍目錄. 서울 : 高麗大學校 出版部, 19
74.
-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奎章閣圖書 中國本總目錄. 서울 : 同館, 1972.
- _____. 奎章閣圖書 韓國本總目錄. 서울 : 同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
文化研究所, 1965.
- _____. 일사 · 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서울 : 同館, 1966.
-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 國會圖書館, 1968.
- _____. 韓國書誌年表.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2.
- 藏書閣.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서울 : 同閣, 1974.
- _____.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 : 同閣, 1972.
- 鄭炳昱. 樂善齋文庫本 目錄 및 解題. 서울 : 국어국문학회, 1969.
-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 京城 : 朝鮮通信社, 昭和 7 (1932).

부록 : 책목록

1. 소속	일전	공수권
2. 효경	일전	
3. 明조	일전	공칠전
4. 明憲	일전	공칠권
5. 쥬역	일전	공십수권
6. 역희	일전	공오권
7. 시던	일전	공십권
8. 시던언희	일전	공칠권
9. 혜고	일전	공십구권
10. 혜고언독	일전	공눅권
11. 어제박 흉원	일전	
12. 니훈	일전	공삼권
13. 려수서	일전	공삼권
14. 선문	일전	공삼권

15. 고문진보	일전	공칠권
16. 고문진보언학	일전	공십칠전
17. 오륜형실	일전	공수권
18. 파선	일전	
19. 흥어시이전		
20. 수문뉴취		칠십오권
21. 당시별적	일전	공녹권
22. 패문운부		
23. 규장전운		일권
24. 운부군옥	일전	공이십칠권
25. 을묘정니의궤		
26. 덩희정니의궤		공삼권
27. 삼지도회	일전	공오십전
28. 귀문도	일첩	
29. 귀문도학	일첩	
30. 직금도	일첩	
31. 회근수		일권
32. 불아불		일권
33. 화첩		삼
34. 전등신화		이권
35. 공주가어		이
36. 소미가숙통감	단	
37. 범슈던칠국춘추	단	
38. 가의치안칙	단	
39. 국풍	단	
40. 삼독기	단	
41. 삼국기		공삼십구
42. 현봉쌍의록		공이십이
43. 무오연횡		공십수

44. 옥닌몽	공십이
45. 무목왕정충녹	공십이
46. 고문벽선	공십
47. 성풍뉴	공칠
48. 남계연담	공수
49. 설시늬범	공오
50. 성널대수	공삼
51. 일동장유가	공수
52. 쌍덜옥쇼봉	공삼
53. 쑙향년	공수
54. 난초진세괴	공이
55. 유람	공이
56. 작비암	공이
57. 대송홍망녹	공이
58. 녀수서	공이
59. 괴갑견문녹	
60. 낙성비룡	공이
61. 문장풍뉴삼덕록	공이
62. 도잉횡	공이
63. 칙각년	이권
64. 도시보은녹	공이
65. 부담	단
66. 쥬선년	단
67. 한털글	단
68. 왕태상	단
69. 고금녀범	단
70. 고금절염투식녹	단
71. 일촬금	단
72. 우희원람	단

73. 넉덕과년	단
74. 산성일과	단
75. 위음식	단
76. 뉙신년	단
77. 도척년	단
78. 너용국정난과	단
79. 사심보	단
80. 각광년	단
81. 윤판셔부인년	단
82. 방심원의마과	단
83. 고담	단
84. 고담	단
85. 쇼혹언히	일권
86. 삼강횡실언히	일권
87. 다훈	일권
88. 유한당	공삼
89. 유빅아	단

On the Chaeg-mog-nog: a book catalog written by Hangul character

Byeong-tae Yun*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eg-mog-nog** was analysed and studied. **Chaeg-mog-nog** is one of the rare book catalog which written purely by Hangul character.

In this catalog, 89 kinds(over 500 books) were regarded, included 21 kinds of Korean Hangul novels. Except the 30 kinds of books, many similar and same titles and contents of works are remained.

The compiler of this book catalog was unknown. B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collection and the calligraphic style of this catalog, the compiler shall be woman who may have some connection between the royal pala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National Kyungpook University,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llection, the catalog may compiled in the early regime of King Sun-jo.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ld and Revised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with Reference to Chapter 6 of Descriptive Cataloging

Soon-chung Hahn*

< Abstract >

In 1974 appeared the revision of Chapter 6 (which was then published as a separate monograph)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 AACR). The revision is the sum result of the incorporation of the many changes put forth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 ISBD(M)) including the prescribed punctuation and also the reorganization and rearrangement, in much clearer and more accurate terms, of the previous 1967 AACR rul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hen to point out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1967 AACR rules and the revised 1974 AACR rules (for Chapter 6) for the benefit of the cataloger in her actual task of descriptive cataloging. The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 (1) an examination of the Appendices, I, III, and V of the revised rules, which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revision of Chapter 6; (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ven Areas of the revised General rules commonly used in descriptive cataloging; and (3)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al rules.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